**[교회 표어]** ·은혜충만 · 진리충만
**[교회 3대 목표]** ·세계선교 적극화 · 일천교회 설립 · 전성도 성령충만
**[성도생활의 목표]** ·전도와 봉사에 힘쓰자 · 모이기를 힘쓰자 ·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를 갖추자

은혜와진리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 "믿음의 정병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 '청년봉사선교회 겨울수련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려

청년봉사선교회의 겨울수련회가 1월 13일(금)부터 14일(토)까지 1박 2일간 전원성전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요한일서 5:4,5)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렸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숙박을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이번에 전원성전에 모여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1박 2일 동안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들은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통해 서로 믿음을 북돋우며 교회생활의 신령한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당회장 조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시고 교회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며 열심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조용목 목사님은 특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전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은 성도답게 세상의 그 어떤 시험, 환난, 핍박, 유혹도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단호하게 물리치고 항상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당부하셨다.

특강 후에는 올 한 해 동안 각 성전에서 청년봉사선교회를 섬길 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제목 기도회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1박 2일 동안 청년 담당교역자를 강사로 한 '선택 특강', 하나님과 말씀중심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청년 주제발표', 성경퀴즈대회 '말씀 골든벨', 환난과 핍박에 절대 굴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위한 '카타콤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찬양한 '전국 은혜 자랑',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를 위한 'The Race', 각자 신앙 태도와 생활을 점검하는 '하나님께 go back, 하나님께 고백'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순서가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신령한 지식을 쌓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이 말세지말에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힘써 복음을 전파하며 예배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할 것을 새로이 결단하고,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회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한촌길27번길 9-8 T.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39-11 (광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율전** :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1월 29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11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 (간증)

**"저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미자 -**

저는 오래 전에 전원성전에서 열린 구역장 세미나에 참석하여 전도대상을 받은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언젠가는 간증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십수 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는 기회를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열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다들 어렵게 살던 어린 시절에 교회에 가면 맛있는 과자와 사과를 준다는 말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언니를 따라 처음 시골 교회에 갔던 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날 교회당에서 대학생 언니와 오빠들이 연극을 하고 강단에서 기타를 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불렀던 찬송가 가사와 곡조가 지금도 제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저는 그 후 도시로 나가서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허리가 몹시 아파서 학업을 중단하고 한동안 시골에 내려와 생활하였습니다. 그때 교회에 다니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하셔서 저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뒷산을 넘어 혼자 교회에 다녀오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가 강하게 저의 손을 붙들고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홀로 저의 건강과 꿈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러 번, 가족들 모르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큰언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친정어머니를 전도하였습니다. 친정어머니의 가장 큰 소원은 제가 더이상 허리가 아프지 않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더 열심히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큰언니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섬기게 된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친정어머니가 저를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저의 허리가 나았고 결혼도 하였으니 이제 교회만 다니면 더 이상은 저에게 바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저는 결혼을 한 후 전에 가족 몰래 교회에 가서 기도하곤 했던 그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시댁의 종손 맏며느리로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며 교회에 나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둘째 동서가 둘째 딸을 낳자마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고 시댁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 둘 시댁 식구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우상숭배를 그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 시어머님이 동서의 병을 고치려면 가족이 다같이 예수님을 믿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면서, 저를 볼 때마다 교회에 가자고 강권을 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두 분의 거듭된 권유에 저는 둘째 동서가 다니는 우리 은혜와진리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비로소 결신을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전에 청년 시절 직장 신우회에서 한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했던 남편과 함께 저는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안양의 지하 방에서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502장)과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305장)을 반복하여 부르며 즐겁게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돌아가면서 성경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신령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일부러 자동차를 교회당에서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예배 시간 전후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오가면서 함께 성경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더없이 즐겁고 행복하였습니다. 한 번은 주일예배 시간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고 찬송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간을 정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였습니다.

구역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합심하여 하는 작정기도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방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5년 후에 동서는 35살 젊은 나이에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세상과 이별하기 전 동서가 병실 밖에 나가고 싶다고 하여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동서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더니 "고맙습니다. 모두 하늘나라에서 만나요!"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종예배를 마치고 동서의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 '아, 동서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하는 순간, 동서가 다시 눈을 뜨고 또렷한 정신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하늘로 줄을 서서 올라가고 있고 나는 아직 순서가 안되어 조금 있다가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는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뒤로 저희 가정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직장에 다니던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가는 큰사고를 당했으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위험을 막아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수술이 잘 되고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남편은 말은 업무의 특성상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하여 여러 번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잘 극복을 하고 전화위복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고백을 하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 굳세어진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가족이 주님을 잘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아동부서에 이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예배가 우선이 되는 생활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주일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할 때도 먼저 일찍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후 시험 준비를 하거나 등교하도록 훈육하였고, 두 아들이 순종하므로 저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큰 아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고 둘째 아들이 군에 입대하면서,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여 혼자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저 또한 늦게 공부를 시작하면서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점차 가정예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러면 안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품었던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가정예배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저는 계속 한동안 회개하지 않고 세상 일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큰아들에게 가정예배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큰 아들의 주도로 다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아들의 기도와 모범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 가족은 각자 분주한 생활과 다른 형편과 환경에서도 열심히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신앙생활이 발전하고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졌을 때도 저희 가족은 충실히 예배중심으로 생활하면서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말씀에 감화 감동되고 기도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되어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산성전 청년봉사선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는 큰아들과 청년들이 하나되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희 부부도 더 열심을 내어 기도하게 되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응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일 듯 일어서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큰아들이 저의 소원대로 신실한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하여 분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허전했는데, 둘째 아들이 소망부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과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며 나날이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위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잠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여 제가 걱정하며 기도를 많이 하였는데, 지난 해에 다시 교회당에서 열린 청년봉사선교회 토요모임에 참석하고 또 동서의 간증했던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회 여러 부서에서 성도님들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 힘껏 헌신 봉사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섬기는 분들의 그 모습에서 저희 부부도 크게 감명을 받고 무슨 일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사랑' '성도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송구영신예배에서 당회장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2023년 올 한 해 적극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범사에 성도답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되고 정신 차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즐거움을 누리며 하루하루 신앙생활이 발전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 "누가복음 10장 21절~37절 강해 설교"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 누가복음 10장 21절~37절 강해 설교**
- **찬송 : 찬송가 404장 (새찬송가 304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37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각처로 전도하러 보냈더니 그들이 정한 기간 동안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령들이 쫓겨나간 체험담을 말하며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중에 기뻐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사로가 병들어 급속하게 위독하게 되어 그 누이동생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어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만일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셨습니다. 장사된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부패된 시체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감안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게 될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뻐하심은 그보다 훨씬 진한 감정표현입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사"로 번역된 헬라어 '에갈리아사토'의 원형 '아갈리아오'는 '높이다'의 뜻을 지닌 '아갈로'와 '껑충껑충 뛰다'의 뜻을 지닌 '할로마이'가 결합된 합성동사로서 '몹시 기뻐하다, 크게 기뻐하다'라는 강조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뻐하다'라는 용어가 사용된 구절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 5:11,12)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 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계 19:6~8)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심은 칠십인 제자들의 전도활동과 아울러 다음에 하신 말씀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가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만유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고등생물로 진화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믿으면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지혜로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지혜와 슬기'란 학력과 학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든 적든 창조주와 구세주에 대하여 계시된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구세주에 관한 귀중한 진리를 숨기셨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기 지혜와 슬기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구원의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을 찾으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춘 것은 사람의 방도로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철학, 사상, 종교 등 온갖 방법으로 모색하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하였는데 이는 어린 아이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특성은 그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와 구세주를 아는 데는 세상 지식과 경험보다 마음 상태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세상지식으로 채워진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택함을 받은 자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망한 메시아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들과 요셉과 다윗처럼 메시아의 모형 역할을 한 족장과 왕도 메시아를 직접 보게 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표와 모형과 예언에 의해서 약속의 성취를 열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어서 믿음으로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당시에는 유대종교지도자를 비롯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목도했으며 천국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관한 왜곡된 관념으로 인해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곤경에 빠트릴 것을 의논하고 예수님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미워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어렴풋하게 알다가 점차 인식이 분명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마침내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특권을 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이라도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진 교회시대의 성도들 특히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메시아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특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예표적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대망하며 즐거워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성도들에 비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성취되었고 재림하실 날만 기다리는 성도들은 더욱 기뻐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는 어찌하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고, 오래 살되 여유 있게 잘 살기를 바라며, 잘 살되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예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그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옳은 대답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실은 그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행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참 뜻을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만드신 이가 그 사물의 존재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꾐을 받은 인류의 조상은 존재 목적에서 이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타락이며 근본적인 죄 입니다. 이는 인간 역사 가운데 비극의 시작이며 불행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속의 언약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벨은 장자 오실 구세주를 믿고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며 또한 허다한 사람들이 창조주이시며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1서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9,10)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단계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훌륭하고 선량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참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었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기 위하여 백성의 대표자들을 세겜에 불러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4,15).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중립적 태도나 하나님과 우상을 양쪽 다 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고후 6:14~18).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하나님을 섬긴다면 모든 우상을 배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서 넘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였습니다. ②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하였습니다.

율법학자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네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진정한 자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열등의식은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생겨납니다. 매사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연민에 빠지는 사람은 왜곡된 자기 사랑의 사람입니다. 자기학대 역시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생겨납니다. 자기의 욕구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자신을 미워하여 자학하는 사람은 왜곡된 자기 사랑의 사람입니다. 교만도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생겨납니다. 비교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사람은 왜곡된 자기 사랑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설명하여 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5~39).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율법학자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묻기를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로써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버렸다. 때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뒤에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가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살펴주십시오. 당신이 더 쓴 비용은 제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환난을 당하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웃이라는 교훈뿐 아니라 핵심은 강도 만나서 육신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이 위기에 처한 사람이 구원 얻도록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상징성이 있는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여드는 거룩한 성입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길을 가로막은 가나안 첫 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저주한 성으로서 세속도성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80미터이고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258미터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100리도 안 되는 거리에 1000미터 이상의 낙차가 생기는 내리막길입니다. 타락의 길은 내리막길로서 가기가 쉽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 과정을 보면 내리막길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영에 속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타락하면서 혼에 속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손들은 점차 육에 속한 생활로 전락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모두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여리고 길에는 마귀가 강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도적이란 마귀를 가리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제사와 의식을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종교적인 계율과 의식이 마귀에게 공격당하여 상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포도주와 감람유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였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3장에 기록되기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행하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복음 전도자의 역할과 모범적인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귀에게 영혼이 유린당한 자를 볼 때 마음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였습니다. 어떤 수단 방법으로든 불신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료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총을 입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주막에 데리고 갔습니다.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위하여 데나리온 둘을 희생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헌신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견고하고 깊어지도록 돕기 위해 수고하는 것도 이웃 사랑입니다. 멸망 길로 가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가장 숭고한 이웃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곤란 중에 있는 사람 특히 영적인 불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녕 복이 있습니다.